

애리조나·오키나와서 'KIA 주전경쟁' 불붙는다

내일부터 스프링캠프 돌입

선수단, 30일 미국 애리조나로 한승택·주효상·신범수·김선우 안방마님 주인자리 경쟁 치열 좌익수 한 자리 놓고도 '한판'



“주전 경쟁, 애리조나와 오키나와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주전 라인업과 선발 투수진의 윤곽을 결정하는 스프링캠프에 돌입한다.

KIA는 다음달 1일부터 미국 애리조나 투싼 키노 스포츠 컴플렉스에 1차 스프링캠프를 차리고 훈련을 시작한다.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는 선수단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애리조나로 향했다.

선수들은 미국 애리조나에서 '3일 훈련 1일 휴식' 체제로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을 2월 23일까지 소화한 뒤 다음날 일본으로 이동, 오키나와 친구장에 2차 스프링

링캠프를 차리고 3월 9일까지 본격적인 실전 훈련을 한다.

KIA의 올해 스프링캠프 화두는 '경쟁'이다. 여러 포지션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스프링캠프 참가자 명단을 살펴보면 김종국 감독의 팀 전력 극대화 방안을 엿볼 수 있다. 군 전역 선수, 이적 선수, 외국인 선수, 신인 선수 등과 기존 선수들을 자극하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KIA의 안방마님 경쟁이 치열하다. 한승택, 주효상, 신범수, 김선우 등 4명의 포수들이 경쟁을 벌인다.

이들은 지난 시즌 안방을 든든히 지켰던 박동원이 LG와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맺고 떠나면서 주전 포수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생겼다.

10년간 1군에서 백업으로 활약했던 경험과 수비력 면에서 한발 앞선 한승택과 키움에 신인 지명권(2024년 2라운드)을 주고 영입한 주효상이 1군에서 주전과 백업을 나눠 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한승택 주효상 신범수 김선우

2016년 2차 8라운드로 입단한 신범수는 1군 출전 경험이 60경기에 불과하지만 퓨처스리그에서 2년 연속 3할 타율을 기록할 만큼 타격에 재능이 있다.

2021 2차 9라운드로 KIA에 입단한 김선우 역시 1군 경험은 적지만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타율 0.303, OPS(출루율+장타율) 0.732로 타격에서 잠재력을 보여줬다.

김종국 감독은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포수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안방의 힘을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좌익수 경쟁도 마찬가지다. 소크라테스(중견수)와 나성범(우익수)이 고정된 가

운데 나머지 좌익수 한 자리를 놓고 이창진, 김석환, 김호령이 다툰다.

이창진은 지난 시즌 규정 타석에는 미달했으나 111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1, 7홈런, 48타점을 기록하며 주전급 활약을 펼쳤다.

지난 시즌 데뷔 후 처음으로 개막엔트리에 합류했으나 1군 벽을 뚫지 못했던 김석환은 호주프로야구(ABL) 질롱 코리아에서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올 시즌 주전 도약을 노린다.

'수비 달인' 김호령은 타격만 좋아진다면 언제든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다. 김호령은 지난해 백업으로 활약하며 54

경기에 출전, 타율 0.273을 기록했다.

3루수에서는 류지혁과 김도영, 변우혁 등 3명의 경쟁 체제다. 지난 시즌 데뷔 후 처음으로 규정 타석을 채우며 127경기 타율 0.274, 2홈런, 48타점으로 주전 3루수로 활약한 류지혁에게 김도영과 변우혁이 도전하는 모양새다.

김도영은 지난해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백업으로 전락했지만 후반기 출전한 36경기에서 타율 0.283, 4타점, 6도루를 기록하며 잠재력을 발산시켰다.

변우혁은 선발 한승택을 한화로 보내고 영입한 5년 차 거포 유망주다. 그는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잠재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나설 각오다.

마운드에서는 손 앤더슨, 아도니스 메디나, 양현종, 이의리로 선발진 4명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운데 5선발 자리를 놓고 사이드암 임기영, 좌완 김기훈, 좌완 신인 윤영철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조코비치, 통산 10번째 호주오픈 우승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가 29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2023 호주 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스테파노스 차치파스(그리스)의 공격을 백핸드로 받아치고 있다. 조코비치는 결승에서 3-0으로 이기고 통산 10번째 단식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호주오픈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이다. **신화/뉴시스**

광주 성덕초 장운우, 전국동계체전 빙상 스피드 동메달

남 13세이하부 2000m 2분57초95

광주 성덕초 장운우(5년·사진)가 제 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빙상스피드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장운우는 지난 28일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이번 체전 사전경기인 빙상스피드 남자 13세 이하부 2000m 경기에서 2



분57초95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장운우는 1위 권용원(2분57초18·대구교대안동부설초 6년)과 2위 김범(2분57초39·경기 양주덕현초 6년)에 간발의 차로 밀려 3위를 기록,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동환 기자**

'셔틀콕 간판' 안세영, 인도네시아 마스터즈 女단식 우승

결승서 마린에 2-1 역전승 2주 연속 BWF월드투어 정상

광주체고 출신의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 간판' 안세영(21·사진)이 2023 인도네시아 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 2주 연속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정상에 올랐다.

세계랭킹 2위 안세영은 지난 29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9위 캐롤리나 마린(스페인)에게 세트스코어 2-1(18-21 21-18 21-13) 역전승을 거뒀다.

다. 이로써 안세영은 지난 22일 2023 인도오픈 우승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오른쪽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테이핑을 한 채 결승에 나선 안세영은 1세트를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1세트 초반 10-7로 앞서나간 안세영은 4실점을 허용하며 역전을 허용한 뒤 전세를 뒤집지 못했다.

안세영은 2세트를 따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안세영은 13-13 팽팽한 접전 상황에서 장기인 그물망 수비로 마린의 실책을 유도하며 16-13으로 달아났고 끝까지 리드를 지켰다.

안세영은 마지막 3세트에서도 10-10

으로 맞서다 연속 득점을 올리며 14-10으로 흐름을 가져온 뒤 끈질긴 수비와 역습 공격으로 마린을 공략하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원사업 우수시도 선정

2017년부터 5년 연속 수상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시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시도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업(50%)·현장(30%)·행정(10%)·정책반영(15%)·위원회(5%)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총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전국 최초 1호 광주시북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및 개관, 특광역시 중 5개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최우수시설 선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코로나 19로 지체되었던 지역 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장애인생활체육교실·동호인클럽 운영 △장애인동계스포츠캠프 운영 등도 호평을 받았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평가 우수 시도 선정으로 2017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광주시장애인장애인체육회 한상득 수석부회장(가운데)과 신영용 사무처장(왼쪽), 박우성 생활체육팀장이 2022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시도평가 우수시도 인증패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안았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 평가 우수 시도로 선정된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023년 해외 선진 생활체육 현장 견학의 기회 부여와 2023년 생활체육지원사업 기금 지원 사업비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광주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질 높은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해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